

# 성(性) 소화(笑話)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

-『어면순(禦眠楯)』을 중심으로-

김준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 1 서론
- 2 ‘옛보기’와 ‘옛듣기’의 양상과 전달자의 존재
- 3 ‘옛보기’와 ‘옛듣기’를 통한 불균등한 관계 형성과 성(性)의 물신화
- 4 결론

본고에서는 『어면순』 속 성 소화들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를 살펴보았다. 옛보기/옛듣기가 정태적 ‘시선’이면서 동태적인 ‘행위’일 때, 이 행위에 담지된 무의식적 욕망, 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민하였다. 옛보기와 옛듣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남녀의 성교 혹은 여성의 성기이다. 옛보거나 옛듣는 행위 자체는 일상에서 금기로 취급되지만, 해당 소화들에서는 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주요 이야깃거리를 표면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옛보기와 옛듣기 행위의 주체, 즉 성교를 옛보고 옛듣는 전달자는 해학을 조성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보거나 옛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전제로 하면서, 주체와 대상의 ‘합의’가 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서술은, 옛보거나 옛듣는 주체가 ‘옛보거나 옛들어도 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옛보기와 옛듣기 주체의 성욕을 긍정하면서 끝나는 서사의 흐름은 관음증의 메커니즘과 효과를 보여준다. 아울러 ‘성교를 거부하지 않고, 남성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신체를 보여주고 성교를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옛보기와 옛듣기의 대상인 여성의 육체, 욕망은 물신화되며 여성 육체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서 한층 파편화된다.

옛보기와 옛듣기를 통해 여성의 신체, 성욕이 실제와 다르게 ‘물신화’될 때, 이 물신화의 이면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성욕과 쾌락이 존재한다. 물신화 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은 부인되고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이 물신화되는 이면에는, ‘옛보거나 옛듣지 못하는 상황은 ‘결핍’이 된다는 점에서 옛보거나 옛듣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존재한다.

국문핵심어: 『어면순』, 성 소화, 옛보기와 옛듣기, 물신화, 쾌락, 결핍

## 1 서론

본고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 ‘소화집’으로 일컬어지는 『어면순(禦眠楯)』을 대상으

로, 이 소화집 속 성(性) 소화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를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어면순』에 인간의 성욕이 ‘나타나 있다’라는 당연한 결론에서 나아가, 그 욕망의 형상화 방식과 그 방식에 결부된 심층적 심리를 다시 검토해보려는 작업이다.

『어면순』이 소화집 중에서도 성에 집중적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유명세’에 비해 구체적 서술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연구사적 관심을 살펴보면, 주로 조선시대 소화집의 맥락 속에서 부분적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편찬자 송세림의 당시 처지와 관련된 논의가 제출되었다.

우선, ‘보수적 사회에서의 인간 성욕의 긍정’이라는 해석이 연구사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황인덕은 『어면순』을 16세기 소화사의 성취로 평가하며 기법의 기교화, 소재 영역의 확대 등에 주목하였으며<sup>1</sup>, 윤석산은 『어면순』의 육담이 단순한 ‘외설’이 아니라 골계미를 통해 당시의 양반·남성 지배층 중심의 통념에 도전하고 민간의 구전에 양반 사대부가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sup>2</sup> 김준형은 조선시대 패설 문학의 맥락에서 『어면순』은 당시 독자층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부조화와 불운한 삶”을 그림으로써 전대의 『태평한 화골계전』이나 『촌담해이』와는 그 지향을 달리한다고 보았다.<sup>3</sup> 이후성 또한 작가 송세림이 성을 소재로 현실을 비판하고 불운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다고 보았으며<sup>4</sup> 임완혁 역시 작가 송세림에 대한 작가론적 관점에서 『어면순』의 저작배경을 살폈다.<sup>5</sup> 「주장군전」 등 개별 수록 작품에 대한 고찰<sup>6</sup>, 혹은 소화의 ‘이야기

1 황인덕, 「16세기 소화사론」, 『어문연구』 제27권, 어문연구학회, 1995, 255-270쪽.

2 윤석산, 「『禦眠楯』 研究」,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403-426쪽. 유사하게 정희자 역시 『어면순』과 『어우야담』을 함께 검토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해학성, 민중성을 사회 비판 의식과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희자, 「16, 17세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사회 비판적 성격 고찰: 『禦眠楯』, 『於于野譚』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1-15쪽.

3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서, 2004, 83-88쪽.

4 이후성, 「〈禦眠楯〉의 性 談論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79쪽.

5 임완혁, 「송세림론 -『어면순(禦眠楯)』의 저작배경에 대한 일고-」, 『한문학보』 제14권, 우리한문학회, 2006, 135-179쪽. 문헌과 구전을 아울러 ‘육담’의 성의식을 고찰한 박사학위논문 연구에서도 『어면순』이 논의되었으나 『어면순』만의 독자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김민

부'와 '논평부'의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어면순』을 언급한 연구<sup>7</sup>도 있었으나 개별 소화에 대한 연구는 추가 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한편 '성 소화' 혹은 '문헌 육담'이 그리는 성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 역시 일찍부터 제기된 바, 신동훈은 문헌 육담에 당시 사회의 경직성이 낳은 왜곡된 '성적 인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sup>8</sup> 최근 유해인은 『어면순』의 겁간과 질투 이야기에서 여성의 성욕이 사대부/남성의 쾌락을 위해 차별적으로 서사화되었음을 지적하였고<sup>9</sup>, 이지환은 '남근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어면순』을 비롯한 문헌 육담의 성 소화들이 성적 억압, 불합리함, 착취, 폭력, 환상 등을 재생산하였다고 보았다.<sup>10</sup>

표현, 서술상의 특징 등과 관련한 논의들 역시 성 서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다. 정희정은 『어면순』 및 『속어면순』 속 성 소화의 직설적이며 노골적인 표현들은 표현 “그 자체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sup>11</sup> 비유적 표현들은 “편찬자의 글쓰기 능력”을 드러내면서 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sup>12</sup>이라고 보았다. 조도현은 남성기를 의인화한 「주장군전」을 단독 연구 대상으로 삼아 표현 형식, 수사 기교 등을 '성 담론의 특징'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였다.<sup>13</sup> 이러한 논의들은 『어면순』

---

영, 「육담에 나타난 성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69쪽.)

- 6 조도현, 「〈朱將軍傳〉에 나타난 性 담론의 특징과 의미」, 『어문연구』 제81권, 어문연구학회, 2014, 129-157쪽.
- 7 류정월,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 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17-444쪽.
- 8 신동훈,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 『한국 육담의 세계관』, 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81-116쪽.
- 9 유해인, 「『어면순』 소재 성소화의 서사 논리와 그 의미」, 『어문논집』 제86호, 민족어문학회, 2019, 41-66쪽.
- 10 이지환, 「문헌 육담의 성 경제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한국고전연구』 제46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41-288쪽.
- 11 정희정, 「16·7세기 성(性) 소재 소화에 나타난 성의식과 표현 기법」, 『고전문학과 교육』 제10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359쪽.
- 12 위의 글, 362쪽.
- 13 조도현, 앞의 글.

의 성 서술이 이론 성취에 주목한 것이나, 성 서술의 폭력성에 주목하는 논의에서는 평가가 정 반대의 양상을 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선행 연구들은 『어면순』으로부터 사회 비판적 의미 혹은 송세립 개인과 『어면순』의 관계를 읽어내거나 노골적인 성 표현의 특징 등에 주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사적 성과를 계승하면서, 본고에서는 『어면순』의 다양한 성 묘사에 주목하여 구체적 서술에 내재된 심층에 접근해 보려고 하였다. 『어면순』의 모든 소화들에서 사회 비판 의식을 읽어내기도 어려운 것이기에 작품 외적 의미보다는 작품 내적 관점에서 개별 소화들 단위의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면순』 속 성 소화들에 나타난 문체적 ‘상황 인지’들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한된 상황, 종종 금지된 상황에서 성을 감각하고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인 ‘옛보기’와 ‘옛듣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신체 부위 혹은 성교에 대한 인지로는 주로 시각적인 ‘옛보기’를 거론할 수 있으나, 청각적인 인지인 ‘옛듣기’까지 포함하여 ‘타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을 보거나 듣는 행위’를 검토하겠다.

‘옛보기’라 하면 시선과 욕망 등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관음증’ 등의 용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옛보기’와 ‘옛듣기’를 ‘관음’으로 대체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우선 양상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옛보기’와 ‘옛듣기’를 사용하고, ‘옛보기’와 ‘옛듣기’를 통한 성적 쾌락의 문제는 본고의 후반에서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옛보기’ 대신 ‘훔쳐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훔쳐보기’와 함께 ‘훔쳐듣기’를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 어색한 점을 감안하여, ‘옛보기’, ‘옛듣기’를 사용하겠다.

문헌과 구전을 아울러 설화 문학에 나타난 옛보기나 옛듣기, 관음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야담에서 여성 정욕이 표현되는 양상을 논하면서 “관음증 구도의 창출”을 언급한 이강옥의 논의<sup>14</sup>, 『어면순』에서 여성의 정욕이 “관음증적 대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언급한 유해인의 논의<sup>15</sup>, 그리고 한문소설에 나타난 ‘관음적 시선’을 고찰한 윤채근의 논의<sup>16</sup>를 참조했을 때,

14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6호, 한국고전여성학회, 2008, 186쪽.

15 유해인, 앞의 글, 62쪽.

16 윤채근, 「한문소설에 나타난 시선의 양상 -근대적 리얼리티의 형성과 연관하여-」, 『어문논

『어면순』을 비롯하여 성 소화에 나타난 관음증과 같은 감각의 방식은 논의를 확장할 가치가 충분하다. 즉, 이러한 감각 행위의 자세한 효과나 의미에 대해서 후속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 및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어면순』의 성 소화에서 엿보기와 엿듣기가 서술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sup>17</sup> 『어면순』의 구체적 서술 차원에서 엿보기와 엿듣기가 나타난 양상을 세밀하게 살핌으로써, 엿보기와 엿듣기가 정태적 ‘감각’이면서 동태적인 ‘행위’일 때 여기에 담지된 무의식적 욕망, 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 2 ‘엿보기’와 ‘엿듣기’의 양상과 전달자의 존재

이 장에서는 『어면순』의 성 소화들에 나타난 ‘엿보기’와 ‘엿듣기’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다.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보다, 그 상황에 대한 감각과 인지가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주목한다. 우선 해당 소화들의 제목, 내용을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번호	제목	내용
8	林郎敦篤	경 상사(上舍)가 딸을 시집보냈는데, 사위 임씨가 종기가 나서 첫날밤 합방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 상사는 사위가 성 불능인 줄 착각하여 사돈 집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이후 경 상사는 사위가 문제없이 딸과 합방하는 것을 엿듣고 기쁜 나머지 방에 돌아와 홍시를 먹으려다가, 부인이 홍시를 내오던 와중 방귀를 끼는 등의 작은 소란이 생겼다.

집』 제53호, 민족어문학회, 2006, 151-179쪽.

17 본고에서 참고한 『어면순』 자료는 다음과 같다. 『古今笑叢』 第1輯, 民俗學資料刊行會, 1958; 조영암 역, 『古今笑叢』, 신양사, 1962; 시귀선·유화수·이월영 역주,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송세림, 윤석산 편역, 『어면순』, 문학세계사, 1999.

18 자료의 번호와 제목은 1958년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펴낸 『古今笑叢』 第1輯의 ‘『禦眠桶』 目次’에 수록된 제목과 순서를 기본적으로 따랐다. 아울러 내용 개관을 작성하고 이후 인용문을 제시함에 있어서 1962년 신양사 발간 『古今笑叢』(조영암 역)과 1998년 한국문화사 발간 『고금소총』(시귀선·유화수·이월영 역주)의 번역을 따랐음을 밝혀 둔다.

10	五子嘲父	어떤 집에 아들 오형제가 있었는데, 어린 동생이 생길까 봐 부모의 동침을 매일 감시하며 방해하였다. 이에 부모가 피를 내어 오형제를 멀리 보내 일을 시켰으나, 아들이 따르지 않고 <u>창밖에서 부모의 밀어를 엿들었다</u> . 부모가 성교하던 중 다섯 아들이 들이닥치고,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었으나 부모가 나눈 밀어를 그대로 읊는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25	元日聽禽	새해 첫날 한 시골 사내(村夫)가 아내를 친압(親狎)하려 하는데 곁의 아이가 방해가 되자 아이에게 나가서 새 우는 소리를 듣고 오라 하였다. 아이가 창 사이로 몰래 부모의 성교를 엿보다 <u>중간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새 울음 소리를 물었다</u> . 이에 아이가 부모가 성교 중 내던 소리를 흉내내어 아버지를 당혹하게 하였다.
32	求醜增奸	조관(朝官) 신씨(申氏)가 어떤 기생을 몹시 좋아하자 한 친구가 그가 ‘뒤 볼 때’는 어찌 보지 못하냐고 조롱하였다. 이에 신씨가 <u>이미 보았다며 그 광경을 자세히 늘어놓고</u> , 친구가 크게 웃으며 시를 읊었다.
36	食著盜	어떤 미친 자(狂生)가 <u>속옷을 입지 않고 일하는 여자의 성기를 보고</u> 여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51	非指村	두 남녀가 성교한 후 서로의 음부를 보이다가 남자의 손가락이 여자의 성기에 들어간 것을 두고 어느 손가락인지 다툼이 생겼다. 이때 나무 위에서 구경하던 <u>손님(客)</u> 이 남자를 놀라게 하여 쫓은 후 여자를 잡고 성교하였다.
55	莖指異味	어떤 ‘촌놈(村漢)’이 빨래하던 <u>노파에게 다가가 찢어진 노파의 속옷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었다</u> . 이후 남자는 들이민 것이 자신의 성기가 아니라 엄지발가락이었다고 발뺌하면서 달아났다. 노파는 엄지발가락이라면 ‘훈훈한 맛’이 남아 있을 리 없다며 꾸짖었다.
56	負釜跡盜	어떤 행상이 자신이 머물던 집 <u>부부의 성교를 엿듣고</u> ‘운우지정에는 두 가지 품격이 있다’며 소리를 내며 요란히 하는 것은 하품(下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아내가 거짓으로 꿈 이야기를 하여 남편을 발에 보낸 후 행상과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이후 행상은 그 집 아내와 가산을 챙겨 도망하려다 불안해하여 여자에게 집에 가서 술과 화로를 가져 오라고 하였다. 집에 돌아가서 화로와 술을 이고 나오던 아내는 남편을 만나 의심을 받게 되었다. 아내는 행상에게 도둑질을 당했다는 핑계를 댔고, 부부가 함께 ‘술을 이고’ 행상을 쫓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60	鹽商觸聲	소금장수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聾人)이 한 집에서 동숙(同宿)하게 되었다. 주인 부부가 운우지정을 나누는 소리를 엿들은 <u>소금장수가 농인을 짚었으나 농인은 영문을 알 리 없었다</u> . 또다시 소리가 들리자 소금장수가 농인을 찌르고, 이에 화가 난 농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러자 주인 부부는 자기들의 일을 비방하는 줄 알고 농인을 쫓아내 버렸다.

61	結婚姻	순천 부사가 거칠고 난폭한 진(陳)이라는 자를 골려 주려고 기생과 동침시킨 후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였다. 기생을 범하려던 진씨는 기생이 자신을 따르지 않자 밧줄로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교하였다. 이튿날 부사가 간밤의 일을 아는 척하자 진씨는 ‘역서(曆書)에서 ‘結婚姻’이라 하였기에 그대로 하였다’고 변명하였다.
81	村奴馬戲	중 부부의 발일이 더딘 것을 괴상히 생각한 주인 노인이 큰 나무 위에 숨어 이들의 행동을 몰래 보았다. 중 부부는 발으로 함께 와서 벌거벗은 채 말을 흉내내며 놀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남자 종이 나무 위의 주인을 보게 되었고, 남편 중은 급히 달아나면서 영문을 모르는 아내 중과 말을 주고 받다가 서로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표 1. 『어면순』 소재 해당 소화 내용 개관

다음은 대상 소화에 나타난 엿보기와 엿듣기의 양상과 관련하여, 대상과 주체, 동기와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엿보이고 엿들어지는 ‘대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엿보고 엿듣는 ‘주체’가 있다. 여기에 그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함께 살펴본다.

번호	제목	엿보기와 엿듣기의 구체적 양상			
		대상	주체	동기	결과
8	林郎敦篤	딸 부부의 성교	딸의 아버지	원만한 부부 관계 확인	들키지 않으려다 어머니가 방귀를 끼는 소동
10	五子嘲父	부모의 성교	다섯 아들	동생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함	아버지를 오히려 당혹시킴
25	元日聽禽	부모의 성교	아이	제시되지 않음	아버지를 오히려 당혹시킴
32	求醜增奸	기생의 배변 행위	조관 신씨(선비)	불명확(신씨가 기생을 몹시 사랑했다고 서술)	제시되지 않음
36	食著盜	발일하는 여성의 성기	미친 남자(狂生)	불명확(옷 사이로 성기가 보였다고 서술)	남녀의 성교
51	非指村	남녀의 성교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손님(客)	불명확	남자는 달아나고 손님이 여자를 범함



55	莖指異味	어떤 노파의 성기	어떤 '촌놈(村漢)'	불명확(옷 사이로 성기가 보였다고 서술됨)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파의 성기에 삽입했다가 달아남
56	負釜跡盜	주인집 부부의 성교	행상	불명확	주인집 여자가 행상과 성교한 뒤 행상을 따라 달아나려는 소동을 벌임
60	鹽商觸聲	주인집 부부의 성교	소금 장수	불명확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이 오해를 사서 쫓겨남
61	結婚姻	진씨와 기생의 성교	어떤 사람 (옛보기를 시킨 부사의 대리인)	순천 부사가 진씨를 골려 주려고 함	기생을 함부로 묶고 범한 진씨가 망신을 당함
81	村奴馬戲	종(奴) 부부의 성교	주인	종 부부의 행적을 밟다가 옛보게 됨	종 부부가 서로 말 울음소리를 내는 등 곤욕을 치름

표 2. 옛보기와 옛듣기의 구체적 양상

옛보기와 옛듣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남녀의 성교 혹은 성기 등 여성 육체의 일부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성교를 옛보거나 옛듣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결과 당혹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부모 쪽이다. 옛보거나 옛듣는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옛보거나 옛듣던 이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알면서 모른 척, 순진한 척하는 '아이'의 형상이 활용되기도 한다(<25 元日聽禽>). 혹은 부모가 성교 중 늘어놓은 밀어가 아들의 입으로 다시 발화되어 부모의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한다(<10 五子嘲父>). 대부분은 어떤 부부, 남녀의 성교를 제3자인 손님, 주인, 아버지 등이 옛보거나 옛듣는다.

옛보고 옛듣는 주체가 '손님'이고 그가 대상이 되는 부부, 남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 그가 종래에는 성교를 옛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51 非指村>에서 보듯 여성과 또 다른 성교를 맺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성기를 훑쳐보던 남성이 다가가 여성을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하고 도망치거나 본격적으로 성교를 맺는 경우도 비슷하다. 타인의 성교나 성기를 옛보거나 성교 상황을 옛들었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것은 대상이고, 이

러한 결말이 웃음을 자아낸다.

따라서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는 뒤따르는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기보다 성교나 성적 상황이 대상화됨을 뚜렷이 보여주는 ‘표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가 대상을 몰래 엿보거나 엿듣지 않았다면 성기를 소재로 한 부부의 말장난, 기생의 측간 사용, 기생을 묶어 놓고 함부로 한 남자의 행위, 발에서 벌어지는 종 부부의 성교 등은 문면에 제시될 수 없다.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 자체는 일상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 소화들에서는 주요 이야깃거리를 표면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의 뚜렷한 동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과도 관련이 있다. 서사가 단순한 소화에서 인물의 행위 동기가 소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기는 어렵다. 다만 금지된 행위인 엿보기와 엿듣기 행위라면 위반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행위 동기가 있을 법도 하나, 『어면순』의 해당 소화들에서는 그 동기가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엿보거나 엿듣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주인집에 머물었다가 우연히 그날 밤 부부의 성교 장면을 엿듣게 되었다’, ‘우연히 지나다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식의 서술이 주를 이룬다. 설령 동기가 제시되었더라도 다섯 아들이 동생 생기는 것을 반대하였다는가, 부사가 누군가를 골려 주려고 했다는 등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가벼운 조롱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이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엿보거나 엿듣는 이를 작중 사건의 주요한 전달자로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아래 〈51 非指村〉에서는 남녀의 성교 장면을 관찰하는 ‘관찰자’ 즉 ‘객’의 눈으로 남녀의 사통이 벌어지고 있다.

#### 〈51 非指村〉

관서지방에 비지촌(非指村)이라는 곳이 있다. 옛날에 한 객이 누에 치는 달에 뽕잎 딸만한 곳을 찾다가 어떤 부잣집을 엿보게 되었는데, 뽕나무가 뻑뻑하게 우거져 있었다. 몰래 나무 아래로 가보았더니, 긴 삼이 뻑뻑하게 우거져 있었으나, 나무 둘레의 몇 이랑만이 평탄하여 마치 사람이 내왕한 흔적인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노는 곳인가 하고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엿갈려 있는 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뽕잎을 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내가 밖으로부터 급히 달려오더니, 나무에 기대어 서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면서 긴 휘파람을 몇 차례 불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인 채 다음 일을 기다렸다. (…)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자, 나무 위에 있던 객이 손가락을 구부려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손가락이지, 저 손가락은 아니오.”

갑자기 놀란 사내는 엎어질 듯이 황급하게 달아났다. 그 객은 곧장 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 여자를 잡고 간음한 뒤 술과 안주를 먹고 뽕잎까지 한 광주리 가득 따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므로 마을이 이름을 얻은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sup>19</sup>

앞서 엿보기와 엿듣기가 대부분 관련 인물의 죽음, 징벌 등 ‘심각한 결말’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객 역시 나무에 올라가 남녀를 ‘관찰’할 뿐 그들의 관계를 질책하거나 도중에 방해하며 꾸짖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내를 놀라게 하여 쫓은 뒤 마지막에 자신의 욕구를 채움으로써, 방관적 관찰자의 위치에서 ‘적극적’ 등장인물로 그 위상이 급변한다. 객이 여자를 ‘잡고 간음’하였다는 것은 여자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성교를 하였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술과 안주를 먹고 뽕잎까지 뺐다는 것은 이 성교가 객에게 있어서 어떠한 ‘획득’, ‘성취’임을 보여준다. 이 객은 어떤 성교의 관찰자이자 전달자라는 위치에서 또 다른 성교라는 ‘사건’ 속 ‘등장인물’로 부상하는 것이다.

아래 <81 村奴馬戲>에서도 남녀의 성교를 엿보는 주인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는데, 종 부부의 성교는 곧 주인이라는 전달자의 눈에 비친 장면이다.

---

19 關西，有非指村，昔有一客，值蠶月，方求採桑，闖一富家，有桑樹蒙密中，潛就樹底，長麻翳鬱，環其樹數畝，坦夷若有人往來之跡。其人意謂“群兒遊戲處。”升樹匿交柯中摘之。俄有一漢自外蒼黃，直抵樹下，倚立彷徨，長嘯數聲，屏氣俟之，(…)遂相詰，其客在樹上，以指俯而指曰“彼指則是此指則非也。”漢惶怖頭仆而遁。其客卽下樹，執其女奸之後，盡啗其酒肴，摘桑盈筐而返。故村之得名蓋由此也。『古今笑叢』(신양사, 1962), 56-57쪽; 『고금소총』(한국문화사, 1998), 299-300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81 村奴馬戲〉

(…) 주인이 다음날 새벽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가 뻑뻑하게 우거진 가지 속에 몸을 감추고 (그들이) 하는 바를 엿보았다. 종과 아내가 나무 아래에 이르러 각자 발가벗고 김을 매기 시작하였다. 겨우 반 식경이 지나 처가 제 남편(사내중)을 불러 “놀아봄이 어떠하오?” 하니 남편이 “좋다”고 하였다.

아내는 구부리고 서서 발을 차며 암말 흉내를 내고, 남편은 양 손을 땅에 대고 숫말처럼 달려가 (…) 마침 나무 위에 쭈그려 앉아 있는 주인을 보게 되었다. 남편이 놀라 달아나자 아내는 이유를 모르고 발을 차며 말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흐흥[隘用], 어디로 가느냐?” 남편이 또 말소리를 내며 말했다. “흐흥[隘用], 나무 위를 봐라.”

흐흥[隘用]은 우리말로 말(馬)이 우는 소리이다.<sup>20</sup>

위 인용문에서 주인은 등장인물이면서 종 부부의 행위를 ‘보는’ 것으로 서사적 기능을 다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술상으로도 주인이 종 부부의 행위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설명되고 있거니와, 묘사 역시 주인의 눈으로 본 장면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사실 종 부부의 성교라는 사건만을 서술하고자 한다면, 주인이 나무에 올라가 일부러 몸을 숨기고 엿본다는 행위는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종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성교를 했다’고 제시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주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성교가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음에도 모르는 상황, 엿보다가 ‘들킨’ 것은 주인 입에도 오히려 종들이 놀라 달아나는 상황 등을 조성하여 웃음을 의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종 부부가 주인 영감에게 성교를 들켜 그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골계적 상황을 조성함에도, 서술자는 돌연 ‘흐흥[隘用]’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끝낸다. 이것이 더 이상 서사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원하는 종결인지 혹

20 (…)翁於明曉先上樹屏于蒙密中，覘其所爲。奴與妻至樹下，各赤身就耘。纔半餉女呼夫曰“作戲若何？”夫曰“諾。”女俯立踞足作牝馬態，夫兩手據地馳，(…)適見樹上主翁蹲坐，奴惶駭而走，女不知所以，踞作馬聲曰“隘用那裡去？”奴作馬聲曰“隘用見樹上。”隘用方言馬戲聲。『고금소총』(한국문화사, 1998), 307-308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은 지나치게 노골적인 성애 묘사로 인한 부담감을 상쇄하기 위한 서술인지는 단일하게 결론짓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이 ‘흐흥’에 대한 언급은 성교 장면을 충실히 ‘보고’ ‘전달하던’ 주인의 역할이 종료되고 다시 서술자가 등장하는 경계가 된다.

성적 대상이나 상황의 전달자로서 부상한 엿보기와 엿듣기의 주체는 소화의 해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장덕순은 한문 소화에서 “듣는 자나 보는 자가 없이 二人의 관계에서도 해학의 조성은 힘들다. 媒介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1</sup> 성 소화 역시 웃음을 통해 해학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을 고려하면, 성교를 엿보고 엿듣는 전달자 또한 해학을 조성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장덕순에 의하면 관료와 기생의 관계를 엿보는 ‘제삼자’, 바보 이야기(癡愚譚)의 ‘방관자’ 등도 해학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의 예시이다.<sup>22</sup> 그런데 만일 제삼자나 방관자의 보기 혹은 듣기가 ‘몰래’ 이루어지는 ‘엿보기와 엿듣기’로 실현될 경우, 대상과 주체 간 정보의 불균등으로 인해 웃음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문제는 전달자가 부추기는 해학의 이면이다. 다음 장에서는 엿보기와 엿듣기가 자아내는 웃음에 ‘가려진’ 관계들을 탐색하면서 이러한 서술이 갖는 의미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 3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한 불균등한 관계 형성과 성(性)의 물신화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전제로 하면서, 주체와 대상의 ‘합의’가 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서술되었다는 것은, 엿보거나 엿듣는 주체가 ‘엿보거나 엿들어도 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엿보거나 엿듣는 주체들이 표면적으로도 대상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부사의 명령을 받은 사람, 종들의 주인, 장인)인 경우가

21 장덕순, 「한국의 해학-문헌소재 한문 소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4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4, 39쪽.

22 위의 글, 39쪽.

있다. 한편 아이들이 부모의 성교를 엿듣고 엿보거나, 집에 머물던 손님, 지나가던 행인이 부부, 남녀의 성교를 훑쳐보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체와 대상 간의 차등적 우열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엿보거나 엿듣던 주체가 아이라 해서 대상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엿보기와 엿듣기가 발각되는 경우에도 벌을 받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다. 오히려 이들이 역으로 대상을 놀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들킨’ 사람이 더 어리석다는 식의 결론이 도출된다.

여기서 차별적인 구도를 설정해 놓은 서술자의 그림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술자는 ‘전달자이면서 작중 인물’이기만 해서는 지각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전달해 주곤 한다. 이러한 양상을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五子嘲父〉

(…) 다섯 아들이 인사하고 나와 가지는 않고, 숨을 죽이고 창 밖에서 가만히 늙은 부모를 엿듣으니 각자 교태로운 말로 밀어붙여 속삭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두 눈썹을 가리켜 “이것은 어떤 물건인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sup>23</sup>

부모의 동침을 늘 반대하던 다섯 아들이 밖에 나서는 척하고 집에 머무르며 부모의 성교를 엿듣는 부분이다. 부부가 문답을 주고받는 말소리, ‘청각적’ 정보는 다섯 아들이라는 ‘전달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달자’가 다섯 아들 뿐이라고 하기엔 부부의 성교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부부의 말소리라는 청각적 정보와 함께 시각적 정보들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존재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서술자의 존재는 단순히 ‘엿보거나 엿들은 것은 곧 서술자가 보고 들은 것이다’ 너머의 의미를 지닌다. 엿보기와 엿듣기의 구도 자체가 성별과 신분을 막론하고 성욕을 동등하게 ‘해방’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술자는 불

23 五子辭出不往，屏息窓外，狙聽所爲，翁婦將賦高唐，各進嬌語。翁捫婦之兩尾，“這何物耶？”對曰(…) 『古今笑叢』(신양사, 1962), 21-22쪽.

균등한 시선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어면순』 속 옛보기와 옛듣기가 나타난 성 소화에서 여성의 성욕이 남성과 동등하게 긍정된다고 볼 만한 경우는 주인 집 아내가 손님에게 먼저 통정을 청하는 〈56 負釜跡盜〉 정도이다. 그러나 〈負釜跡盜〉 역시 아내가 운우지정을 평하는 손님(행상)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내는 술까지 깊어지고 행상을 따라 나서려다 그가 도망가 버리자 뒤따라온 남편에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묘사된다. 결과적으로 이 소화 역시 옛보기의 주체였던 행상 남성의 정욕을 긍정하면서 끝난다. 즉, 옛보기나 옛듣기를 통해 충족되는 것은 상황 인지의 우위에 있었던 인물의 욕망이고, 이 충족의 우열은 다름아닌 서술자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신체를 옛보고, 타인의 성교를 옛보고 옛듣는 것은 자신의 욕망도 아닌 ‘빈 껍데기’를 좇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옛보거나 옛듣는 이가 얻는 ‘쾌락’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은 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기’의 문제에서 종종 지적되는 물신(페티시, fetish)과 물신주의적 숭배의 쟁점을 상기하게 한다.

옛보기 후 반강제적 성관계가 이어지는 〈36 食著盜〉, 〈51 非指村〉, 〈55 莖指異昧〉을 살펴보자. 이 중 〈36 食著盜〉, 〈55 莖指異昧〉에는 서술상으로나마 상대 여성도 성적 결합을 내심 반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표면적 ‘적극성’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sup>24</sup> 여성은 오히려 남성 ‘보다’ 성관계에 ‘적극적’

24 신동훈은 성 소화의 이러한 양상이 겉간과 같은 성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신동훈, 앞의 글, 100-101쪽.), 강상순 역시 성 소화 속 여성의 성욕이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강상순, 「조선 전기 성 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2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149쪽.), 류정월 역시 성 소화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그 쾌감이 ‘과잉’된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류정월, 「성소화 텍스트의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제25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391-418쪽.). 김세라 역시 『고금소총』 속 남성과 여성의 쾌락에 대한 묘사가 비대칭적이며 폭력적 양상을 띤다는 점을 지적했고(김세라, 「『古今笑叢』에 나타난 남녀의 권력관계 연구」, 『국어문학』 제62권 62호, 국어문학회, 2016, 115-139쪽.), 이지환은 문헌 육담이 여성의 쾌락만 과도하게 부각한다는 점을 ‘남근자본’의 증식의 차원에서 지적하였다(이지환, 앞의 글, 251-252쪽.). 물론 폭력성으로도 읽히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논함에 있어서 각 논의마다 세부 지향점이 다소 상이하다. 그럼에도 『어면순』과 같은 성 소화에서 성에 대한 여성의 반응이 일방적으로 혹은 과장적으로 나타난다는

인 것처럼 보이면서 강간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쉽게 수용하기도 하는 반면 남성의 성욕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서술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교를 거부하지 않고, 남성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신체를 보여주고 성교를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은 남성 중심의 환상(판타지)적 여성상이다.<sup>25</sup>

이러한 ‘환상’은 실제 상황에서 예상되는 여성의 행동은 공백으로 남겨둔다. 대신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해 생겨난 환상들은 여성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고, 남성의 강제적 성교를 ‘성취’로 의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육체, 욕망을 물신화한다.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빌리면, ‘물신’ 혹은 ‘페티시(fetish)’는 실재를 왜곡하고 가려 주는 대체물로서 남성이 거세에 대한 불안 혹은 위협을 가리기 위해, 특히 여성에 대하여 동원하는 은폐와 대체의 방식이다.<sup>26</sup>

〈32 求醜增妍〉

(…) “내 이미 보았노라. 그가 처음으로 뒷간에 오를 때를 볼작시면 공작새가 오색 구름을 타고 간곡(澗谷)에 들어가는 것과 흡사하며, 그 붉은 치마를 벗고 아랫도리를 드러낼 때에 이르러서는… (…)”<sup>27</sup>

한 선비가 측간에 간 기녀를 엿보는 〈32 求醜增妍〉 역시 배설 행위를 장황하게 묘사하고 친구의 답시(答詩)를 제시하여 ‘화장실 엿보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희화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 사건이 현대 사회에서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본고에서 논외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성교가 아닌 배설 행위로부터 기녀에 대한 성욕을 암시하고 있기에, 대상에 대한 파편적 제시를 통해 기녀라는 인물에 대한 성욕을 확대시키는 물신주의적 엿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점은 일반적인 사실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25 정희정, 앞의 글, 350-354쪽에서도 소화에 ‘상상력에 의존하게 하는 환상으로서의 성’이 나타난 양상을 논의하였다. 이를 참조하면서도, 본고는 그 환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식에 관심을 두기에 해당 논의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26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40-43쪽.

27 (…) “僕亦已經矣。觀其初上厠也，如孔雀，乘五雲而入澗谷，及其捲紅裙而露下部也，…(…)” 『古今笑叢』(신양사, 1962), 53-54쪽.



배설은 한 인간에게 있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엿보기를 통해 전달되면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처리하는 기녀’는 ‘선비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일을 보고 있는 기녀’로 뒤바뀌고, 기녀가 주체인 ‘배설 행위’는 선비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왜곡된다. 이 모두 엿보기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대체 현상이다.

〈61 結婚姻〉

(…)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그의 거동을 엿보게 하였다. 과연 밤이 이슬해지자 진 서방이 말 잘하는 기생을 범하고자 하니, 기생이 말로써 이를 모면코자 하거늘 이에 진 서방은 굶은 밧줄을 구해다가 기생의 사지를 퐁퐁 동여매 놓고 음탕한 짓을 마음대로 하였다. (…) 진(陳)씨가 일이 탄로되었음을 알고 곧 엿드려 “무부(武夫)는 서책을 알지 못하고 찾아 읽은 것이라고는 다만 역서(曆書) 뿐입니다. 역서에 이르되 혼인(婚姻)은 맺는(結)다고 하였으니, 그 같이 하였습니다.”고 하니, 부사가 몹시 웃었다.<sup>28</sup>

기생을 밧줄에 묶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61 結婚姻〉 등은 엿보기 구도에서 발생하는 가학성의 일면을 보여 준다. 이 가학성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밧줄에 묶어 강간하는 것에서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부추기고 ‘방관’적으로 엿보면서 이후에는 ‘몹시 웃을’ 정도로 즐긴 데서도 가학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로라 멀비는 영화에 나타난 ‘보는-주체-남성 對 보여지는-객체-여성’의 이분 구도를 통해 남성에게 쫓기거나 변형되는 여성의 모습을 설명하며, 대상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능동적인 가학적인 관음주의”가 “이상적인 수동적 상대역”으로서의 여성을 동반함을 지적한 바 있다.<sup>29</sup> 위 〈61 結婚姻〉는 그

28 (….) 使人覘所爲, 抵夜, 陳欲犯之則妓果因辭, 陳取熟繩而縛四肢後, 遂淫之. (….) 陳, 出跪曰 “武夫日不知書, 嘗涉獵者只曆書耳. 曆書云 ‘結婚姻.’ 故如是耳.” 府倅絕倒. 『古今笑叢』(신양사, 1962), 37-38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29 로라 멀비, 김훈순 역, 「시각적 쾌락과 서사영화: 남성관객」, 『성·미디어·문화-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15쪽.

러한 가학적 관음주의가 현대 영화의 사례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성이 이상적인, 수동적인 상대역을 맡는다는 점은 기생에 대한 폭력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결말 부분 부사와 진씨의 대화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성교 현장을 엿보았던 부사 역시 ‘기생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교한’ 진씨의 폭력은 방관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진씨를 가볍게 비웃는 데 그치고 있다. 오히

니케이션-], 김명혜·김훈순·유선영 공편, 나남출판, 1997, 238쪽. 멀비는 「시각적 쾌락과 서사영화: 남성관객」에서 프로이트와 라캉 등을 인용하여 ‘scopophilia’, ‘voyeurism’ 등의 개념을 통해 영화 스크린 위 여성에 대한 시각적 대상화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쾌락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극장의 (남성) 관객이 스크린 속 여성인물을 ‘훑쳐본다’고 느끼며 관음증적 시선을 지니는 것, 스크린 속에서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을 시각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227-229쪽.)

본고에서는 ‘보는 남성’과 ‘보여지는 여성’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시선의 우열’을 이해하기 위해 멀비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멀비의 논의 전반을 소개하고 모두 참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성 소화 속 엿보기와 엿듣기에 적용될 만한 쟁점은, 주로 ‘관음증’으로 번역되어 여성을 평가 절하하고 통제하는 ‘voyeurism’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음증(voyeurism)적 시선뿐만 아니라 물신숭배적 시선애착증(fetishistic scopophilia)을 통한 여성에 대한 과대평가의 문제 역시 물신주의적 엿보기를 논하는 데에 시사점을 주었다. 관음증과 물신숭배적 시선애착증은 ‘남근이 부재’하는 여성을 들여다보는 남성들이, 거세 공포로 인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김주현, 『멀비 그 후, 여성관객』, 『여성이론』 제21호, 도서출판여이연, 2009, 135쪽.) 한편, ‘scopophilia’는 흔히 ‘질시증’으로도 번역되나 본고에서는 신광현이 제안한 ‘시선애착증’을 참조하고자 한다. 신광현은 이 용어의 어원이 “시야 안에 두기를 좋아함”이라는 중립적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관음증, 규시증, 질시증 등을 포괄하면서도 “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행위”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시선애착증’을 제안하였다. (신광현, 「시선과 영화: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 제8호, 생각의나무, 2002, 78쪽. 이와 함께 신광현은 ‘voyeurism’이 성적 대상과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탐시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voyeurism’이 성적 대상과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관음증’을 사용하겠다.)

물론 멀비는 관음증과 물신숭배적 시선애착이 모두 여성 이미지의 모순과 모호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결과적으로는 남성중심적 시선의 해체를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멀비의 논의에 대해서는 주체와 대상을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도에 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멀비의 보완 논의가 제출되는가 하면 멀비에 대한 비판을 다시 재고하는 논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주현, 앞의 글 참조.) 본고에서는 멀비의 논의가 수반하는 넓은 장(場)을 인지하되, ‘감각’에 얽힌 구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필요에 따라 참조하려는 것이다.

려 ‘뉘다(結)’가 언어유희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폭력의 가해자는 부사뿐만이 아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혹은 무한의 관찰자—서술자 혹은 독자로 가정되는 존재들의 눈—또한 이러한 폭력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화 내에서 이러한 폭력성은 그저 진씨를 겨냥한 부사의 놀림거리 이상으로 거론되지 않으며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sup>30</sup>

성 소화 속 여성들은 엿보기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섹슈얼리티의 측면이 부각되어 제시되기 마련인데, 엿보기의 대상이 될 경우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서 파편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중 상황과 달리 서술자와 실제 독자는 엿보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제약이 없는’ 보기를 행할 수 있는 반면, 대상은 여전히 파편으로만 제시되는 비대칭적 구도가 강화된다. 존 버거가 누드 회화의 대상이 되는 여성에 대하여 “관객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벌거벗고 있다”고 지적한 바<sup>31</sup>는 성 소화 속 엿보이는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신체, 성욕이 실제와 다르게 ‘물신화’될 때, 남성 성욕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물론 성 소화의 향유를 통해 남성 독자층의 욕망이 간접적으로 충족된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 소화에서 “남성의 성적 쾌락은 부재”하는 것처럼 서술된다 할지라도 결국 ‘여성의 쾌락’이 (여성에게 쾌락을 느끼게 한)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대체하”고 ‘남성들의 웃음’을 목표로 한다는 지적<sup>32</sup>을 상기할 때,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한 물신화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성욕의 ‘존재’를 표지한다. 엿보기와 엿듣기를 수행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숨어

30 유해인, 앞의 글, 58-59쪽에서도 이 소화 속 겹간이 ‘자랑’의 소재임이 지적된 바 있다.

31 존 버거, 최민 역,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9, 59쪽. 이는 벌거벗은 몸(naked)과 누드(nude)의 차이를 전제한 설명으로, 버거에 의하면 벌거벗은 몸과 달리 누드는 그림을 보는 관객에게 전시되는 몸이며, 누드인 몸은 특별한 대상으로 이용된다. (같은 책, 64쪽.)

32 류정월(2007), 앞의 글, 402쪽. 해당 논문에서 논의한 성 소화와 본고에서 살핀 『어면순』의 성 소화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 소화들이 여성의 성욕과 쾌락을 과잉 재현하는 이면에 남성의 쾌락을 축소하여 재현한다는 점, 결국은 ‘남성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부각한다는 점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존재하는 것이 부재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범람하는 것처럼 서술된 표면의 진실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연구는 좋은 참조가 된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작품의 심층에서 욕망의 우열을 가리자면 엿보기와 엿듣기의 주체는 물신화를 통해 상황 인지의 우위를 욕망 충족의 우위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sup>33</sup>

이를 ‘성의 물신화’ 차원에서 재해석한다면, 강압적인 상황에 저항하지 않는—않는 것처럼—물신화된 여성 성욕, 그 이면에는 엿보거나 엿듣는 남성의 ‘우월한’ 능력, 마침내 여성과 성교하는 남성의 쾌락<sup>34</sup>이 가려져 있는 셈이다.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엿보고 엿듣는 주체의 우월감이 될 것이다. 엿보고 엿듣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은 마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부인(否認)<sup>35</sup>되어 가려졌을망정 이미 서술 단계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곡되어 물신화되는 여성의 신체 일부, 성욕은 존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서 동원하는 대체물이다.

이때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어면순』 속 성 소화들을 살펴보면 엿보거나 엿들을 수 없는 인물들, 즉 엿보기와 엿듣기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 이들은 타자화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핍’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60 鹽商觸聲〉에는 주인집 부부가 성교하는 정황을 엿듣지 ‘못’하는 농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놀림받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엿보기와 엿듣기의 가 능자-불가능자’의 구도가 드러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서술자의 태도를

---

33 이 서술은, 본고에 대한 심사평 중 성욕의 주체인 남성이 ‘문면’에서 가려졌으며 ‘근간’에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해 주신 심사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본고의 취지를 헤아려 주신 심사위원회 감사드린다.

34 유해인, 앞의 글, 52쪽.

35 ‘부인(disavowal)’은 원래 ‘여성의 남근 부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도착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부인의 메커니즘은 남근의 부재를 대체하는 대체물, ‘물신(fetish)’을 통해 작동한다.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프로이트·라깡 정신분석학-이론과 임상」, 『라깡의 재탄생』, 김상환·홍준기 공편, 창작과비평사, 2002, 123쪽.) 물신과 부인 등의 개념은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용어들의 1차적 의미가 ‘남근’의 존재와 부재에 얽혀 있는 바 이러한 쟁점들이 성 소화 속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용어들의 1차적 의미보다 ‘어떤 것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불인정과 대체물을 통한 은폐 혹은 회피’라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들을 참조한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자’에 대한 소화의 시선 문제를 재고하게 한다.<sup>36</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소화는 은연중에 ‘엿보거나 엿들을 수 있는 것’을 어떠한 능력의 ‘충족’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결핍’으로 내세운다. 여기서 농인은 듣지 못하는데도 결국 부부의 성교는 문면에 전면적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이 성교는 정말로 ‘들리지 않은’ 것인가? 부부의 성교는 이미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농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농인을 웃음거리로 삼는 청인(聽人)이 듣는 소리이다. 앞서 엿보고 엿듣는 이의 존재가 해학을 위한 ‘매개체’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소화에서 농인은 ‘전달할 수 없는 전달자이며 매개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이 소화는 ‘듣지 못함’을 조롱하고 그를 ‘결핍’으로 간주함으로써 웃음을 발생시킬 것이다. 경우에 따라 농인이 성교의 상황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긍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화 속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능력의 결핍’으로 제시됨에 따라 타인의 상황을 엿보고 엿듣는 행위가 은연중에 ‘장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는 『어면순』이 사대부 남성이 아닌 무인, 승려 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낸다는 점<sup>37</sup>이 지적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소화에서 농인이 조롱받는 상황 역시 『어면순』의 배타성이 상황 서술적 측면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당대와 현대 사회의 관점 차이를 무리하게 들이밀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를 묵인하는 공모적 태도, ‘공모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에 대한 비하’ 등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할 때, 성 소화에서 무엇이 결핍으로 규정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현 시대에도 유의미한 쟁점을 남긴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어면순』의 성 소화에서 ‘엿보기’와 ‘엿듣기’에 주목하여

36 속담부터 사대부 문인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근대 문학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는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고전문학연구』 제24호,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이 구체적으로 적실하게 참조된다.

37 유해인, 앞의 글, 56-61쪽.

그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보통 성적 대상이나 상황을 몰래 인지하는 것은 주로 ‘보기’와 관련되어 논의되지만 본고에서는 몰래 ‘듣는’ 행위도 포함시켜 살폈다. ‘보는 주체, 듣는 주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주체와 ‘보이는, 들리는’ 대상 간 차별적 구도가 나타남에 주목하고 엿보거나 엿듣는 주체가 추구하는 쾌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물신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엿보기와 엿듣기의 대상이 어떻게 행동할지와 무관하게, 엿보거나 엿듣는 주체는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대상을 물신화하게 된다. 아울러 물신이 어떤 것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체물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물신화의 이면에는 결국 엿보고 엿듣는 자의 쾌락과 욕망이 가려진 ‘척’ 하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성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중립적 현상이 아니며 엿보기와 엿듣기가 성적 우열을 내포하고 강화하는 행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는 『어면순』이 누구의 욕망을 우선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어면순』의 성 소화 서술이 계층적으로는 사대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sup>38</sup>, ‘성 소화를 통한 성욕의 긍정·해방’의 메시지는 지속적인 반성을 요한다. 이 긍정과 해방은 결국 사대부 남성에게 한정된 성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욕 역시 표면적으로는 긍정되고 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가 ‘적극적’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있지만, 엿보기와 엿듣기를 경유할 때 엿보거나 엿듣는 주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형상화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면순』의 소화들은 길이가 짧고 서사가 단순하다. 따라서 여타 장편 서사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엿보기와 엿듣기, 인지 주체와 대상의 관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킨다면 구전 육담, 성을 소재로 한 한문 단편 등에서의 엿보기와 엿듣기에 대해서도 주체와 대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의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38 정환국은 소화가 사(士) 계층(사대부)의 치부를 은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고(정환국, 「초기 소화(笑話)의 역사성과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제49호, 한국한문학회, 2012, 235-236쪽) 유해인, 앞의 글에서도 소화에 나타난 사대부 계층의 배타성이 논의되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소화에서도 ‘물신화’ 등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면 성 소화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古今笑叢』第1輯, 民俗學資料刊行會, 1958.  
조영암 역, 『古今笑叢』, 신양사, 1962.  
시귀선·유화수·이월영 역주,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송세립, 윤석산 편역, 『어면순』, 문학세계사, 1999.

### 단행본

-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227-229쪽.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서, 2004, 83-88쪽.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40-43쪽.  
존 버거, 최민 역,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9, 59-64쪽.

### 논문

- 강상순, 「조선 전기 성 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2권,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3, 119-154쪽.  
김민영, 「욕담에 나타난 성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69쪽.  
김세라, 「『古今笑叢』에 나타난 남녀의 권력관계 연구」, 『국어문학』 제62권 62호, 국어문학회, 2016, 115-139쪽.  
김주현, 「멀비 그 후, 여성관객」, 『여성이론』 제21호, 도서출판여이연, 2009, 131-151쪽.  
류정월,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 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호, 한국구비문학회, 2005, 417-444쪽.  
\_\_\_\_\_, 「성소화 텍스트의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제25호, 한국구

- 비문학회, 2007, 391-418쪽.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호,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 신광현, 「시선과 영화: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 제8호, 생각의나무, 2002, 75-102쪽.
- 신동훈,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 『한국 육담의 세계관』, 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81-116쪽.
- 유해인, 「『어면순』 소재 성소화의 서사 논리와 그 의미」, 『어문논집』 제86호, 민족어문학회, 2019, 41-66쪽.
- 윤석산, 「『禦眠楯』 研究」,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403-426쪽.
- 윤채근, 「한문소설에 나타난 시선의 양상-근대적 리얼리티의 형성과 연관하여-」, 『어문논집』 제53호, 민족어문학회, 2006, 151-179쪽.
-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75-217쪽.
- 이지환, 「문헌 육담의 성 경제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한국고전연구』 제46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41-288쪽.
- 이후성, 「〈禦眠楯〉의 性 談論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79쪽.
- 임완혁, 「송세립론-『어면순(禦眠楯)』의 저작배경에 대한 일고-」, 『한문학보』 제14권, 우리한문학회, 2006, 135-179쪽.
- 장덕순, 「한국의 해학-문헌소재 한문 소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4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4, 1-43쪽.
- 정환국, 「초기 소화(笑話)의 역사성과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제49호, 한국한문학회, 2012, 205-240쪽.
- 정희자, 「16, 17세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사회 비판적 성격 고찰: 『禦眠楯』, 『於于野譚』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1-15쪽.
- 정희정, 「16·7세기 성(性) 소재 소화에 나타난 성의식과 표현 기법」, 『고전문학과 교육』 제10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343-367쪽.



조도현, 「〈朱將軍傳〉에 나타난 性 담론의 특징과 의미」, 『어문연구』 제81권, 어문연구학회, 2014, 129-157쪽.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프로이트·라깡 정신분석학-이론과 임상」, 『라깡의 재탄생』, 김상환·홍준기 공편, 창작과비평사, 2002, 123쪽.

황인덕, 「16세기 소화사론」, 『어문연구』 제27권, 어문연구학회, 1995, 255-270쪽.

로라 멀비, 김훈순 역, 「시각적 쾌락과 서사영화: 남성관객」, 『성·미디어·문화-여성과 커뮤니케이션-』, 김명혜·김훈순·유선영 공편, 나남출판, 1997, 225-241쪽.

## Abstract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the Sexual Stories of Eomyeonsun (禦眠楯)

Kim Junhee

In this study, I examined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the sexual stories of Eomyeonsoon (禦眠楯). When peeping and eavesdropping are both static “eyesight” and dynamic “action,” the unconscious desire contained in these acts and the perception of sex must be considered. The a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are treated as a taboo in normal life, but in sexual stories, these acts are unpunished and drive the main story to the surface. The subje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function as a messenger who peeps and eavesdrops on sexual intercourse, and he can be said to be a medium that creates humor.

However, peeping and eavesdropping are events that cannot occur easily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nd they are based on the presump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themselves. Therefore, the representation of such acts means that the subje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take place where he can peep and eavesdrop. The flow of the narrative, which ends with affirming the sexual desire of the peeper and eavesdropper, shows the mechanism and effect of voyeurism.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a woman who does not reject sexual intercourse reveals her body and her sexual intercourse to be something “wanted.” Through this, the body and the desire of women, which are obje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are fet-

ishized and the female body, which is the object of peeping, is further fragmented as the object of sexuality.

When women's bodies and sexual desires are fetishized differently from reality through peeking and eavesdropping, they are the sexual desires and pleasures of men, not women, that are behind this fetish. In the process of fetishization, men's sexual desires and pleasures are disavowed and obscured; however, they actually already exist. Additionally, behind the fetishization of women's sexuality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beings who cannot peep and eavesdrop exists when the situation unable to peeping and eavesdropping is treated as the "deficiency."

Key Words: Eomyeonsun (禦眠楯), Sexual Stories, Peeping and Eavesdropping, Fetish, Pleasure, Deficiency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